

다시 부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⑤

念昔同遊 賢愚難選 今朝屈指 紈綺盡遺
九死一生 生者如彼 次第衰殘 孤身空在
生者如彼 次第衰殘 孤身空在 前去何處
尚復恣意 貪嗔難斷 前去何處 尚復恣意
貪嗔難斷 前去何處 尚復恣意 貪嗔難斷

로문 마음으로 밤낮 부지런히 수행해서 빨리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조(佛祖)의 성실한 말에 귀의하여 거울로 삼아서 자기 마음이 본래부터 신령하고 밝고 청정하여 번뇌의 성품이 공(空)함을 비추어 보고, 거기에 다시 사탄 것과 바른 것을 가려서 선택하되 자기 견해를 고집하지 말라. 그리고 마음에 어지러운 생각이 없되 흐리멍덩해서는 안되며, 단견(斷見)을 내어서도 안되며, 공(空)과 유(有)에 집착해서도 안되며, 깨달음의 지혜가 항상 밝아서 정밀하게 청정한 행을 닦으며 큰 서원을 세워 널리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 이는 홀로 해탈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옛 동지를 생각해 보면 현명한 이, 어리석은 이도 있었고, 지금도 손가락을 꼽아보니 아홉은 죽고 한 사람만 남았으나 산 사람도 이처럼 쇠약해졌는데 앞으로 얼마나 남았길래 방자한 생각을 내어 탐욕부리고, 화내고, 질

如或出間事務 種種牽纏 或病苦所惱 或煩惱惡鬼 所能恐怖 有如是等身心
혹사마약구 속공능복 유여시등심심 不安則於十方佛前 至心洗滌
불안즉어시방불전 지심세참

밤낮으로 수행 괴로움 벗어나고 자기 허물 알아 뉘우치고 고쳐라

투하고, 아만심과 방일로 명리를 구해 헛된 세월 보내고, 쓸데없는 말로 친하를 논하며, 계덕(戒德)도 없이 공언히 보시만 받으며, 남의 공양을 받되 아무 부끄러움도 없구나. 이런 온갖 허물이 한없이 곱았는데도 덮어버리고 애용히 여기기 말란 말이나.

以除重障 禮念等行 消息知時 以戒重障 禮念等行 消息知時
이제중장 예념등행 소식지시 動靜解脫 或語或默 一切時中
동정시위 휴어혹묵 일체시중 無不了知自他身心 從緣起
무불로지자타신심 종연환기 空無體性 猶如浮泡 亦如雲影
공무체성 유여부포 역여운영 一切戲論是非音聲 喉中妄出
일체헤어시비음성 후중방출 如空谷響 亦如風聲
여공곡향 역여풍성

如有智者 當須兢慎 策發身心 自知己過 改悔調柔 晝夜勤修
자지이과 개회조유 주야근수 速離家苦 但依佛祖誠實之言
속리중고 단의불조성실자인 爲明鏡 照見自心 從本而來
위명경 조견자심 종본이래 靈明淨淨 煩惱性空
영명정정 번뇌성공 而復勤加決擇 正不執己見
이부근가결택사정 부집기견 心無亂想 不有昏帶 不生斷見
심무산상 불유혼체 불생단견 不著空有 覺慧常明 精修其行
불착공유 각혜상명 정수법행 發弘誓願 廣度群品 不爲一身
발홍서원 광도군품 불위일신 獨求解脫
독구해탈

만일 세간의 갖가지 일에 얽매거나 나 혹은 영고의 괴로움을 받거나 또는 사마약구(邪魔空鬼)의 공포를 받아 몸과 마음이 불안하거나 즉시 시방 부처님 앞에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여 무거운 업장을 털어야 한다. 이때, 예복과 염불을 평등하게 행해야 하며, 업장소멸과 잡념 쉬는 것을 때를 맞추어 하라. 움직일 때나 가만히 있을 때나 말하거나 침묵할 때나 언제든지 나와 남의 몸과 마음은 다 인연 따라 생긴 허망한 것이어서 비어서 주체성이 없음이 마치 물거품 같고, 구름의 그림자 같이, 청안하거나 열등거나 시비하는 소리가 일에서 나오는 것이 마치 풀겨리의 메아리와 같고 또한 바람소리와 같은 줄을 깨달아 알 것이다.

만일 지혜 있는 자라면 응당 조심하고 삼가서 몸과 마음을 채찍질하고, 자기 허물을 알아 뉘우치고 고쳐서 조화

김원각(시인·역경위원)

'스승'의 부재, 개인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사표(師表)가 없다는 건 불행한 일이다. 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저렇게만 살아도 좋겠다고 생각하는 스승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건 행복한 일이다. 그것도 신적 존재가 아니라 한 하늘 아래서 함께 호흡하며, 그 모습대로 닮아가고픈 스승이 있다는 건 참으로 기쁜 일이다. 불가에서는 그런 스승을 일러 '선지식'이라고 한다. 지혜와 학덕이 높고, 정법으로써 후학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는 스승이 바로 선지식인 것이다.

큰 스님과의 대화

혜산스님

내소사 회주

그런데, 불가에서마저도 선지식이 드물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만 간다. 이미 물질이 신의 자리까지 차지한 세속에서는 그렇다 쳐더라도, 그런 세속의 스승이어야 할 불가에서 그런 지인이 나온다는 것은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다. 그렇다면, 오늘의 불교계 아니 오늘의 한국 사회에는 정법 스승이 없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숨어서 나오지 않는 걸까? 그것도 아니면, 아예 스승을 찾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앞에 두고, 단풍 곶개 물든 번산의 내소사에서 혜산 스님을 뵈었다.

“신뢰 어디서 오느냐? 도덕성”

—사회 전문가에 걸쳐서 참된 스승이 없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극에 달한 이 시대의 정신적 빈곤을 드러내는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세간 출세 길을 막론하고,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 여쭙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할까 합니다.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오만가지 재주를 부린다 해도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뢰가 가야 애정도 나오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신뢰는 어디서 오느냐. 도덕성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물론 지도자가 되려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식견이 뛰어나야겠지요. 학자라면 연구 업적이나 능력이 탁월해야 하듯이.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바탕은 도덕성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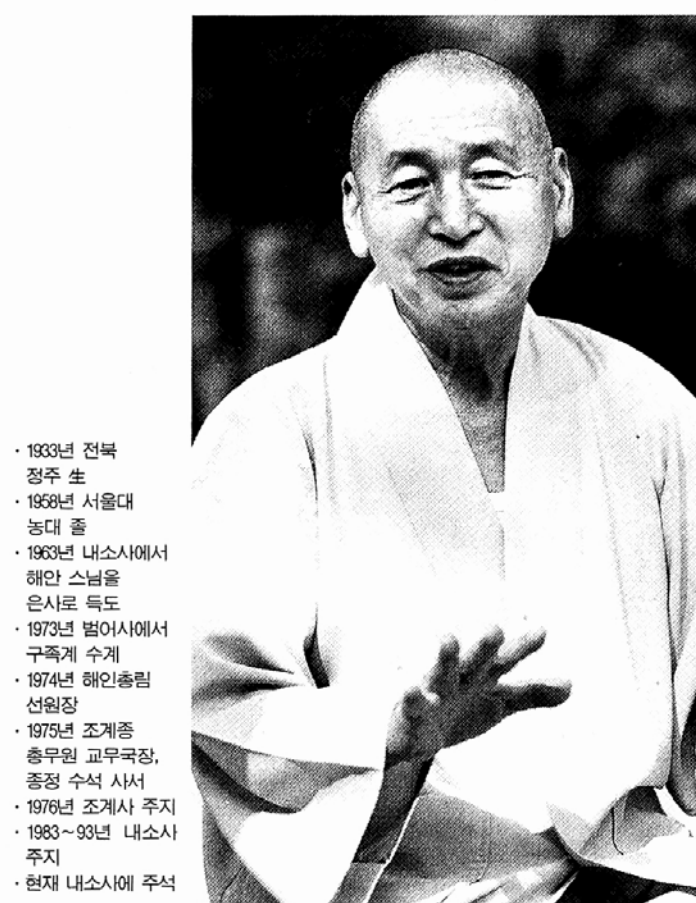
—지도자와 스승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말입니다. 지도자가 스승까지 갖추었다면 더 바람직한 일이겠지만요. 그리고 세간의 스승과 출세간의 선지식도 다소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후학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는 모범이라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불가에서 선지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요. 선지식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선지식인지 한 말씀 일러 주십시오.

▲논란 이가 대중을 이끌 수는 없습니다. 대중을 바른 길로 이끄는 이가 선지식인 것이지요.

그럼 누구를 일러 선지식이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다들 것입니다. 선지식이라 하면, 의심이 다 사라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심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확률대오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남을 이끈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지요.

이만큼 얘기를 듣고 보면 또 의문이 따를 것입니다. 어떤 경지가 의심이 다 사라진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추호도 머뭇거리지 않는 경지가 바로 의심이 가진 경지입니다. 절집 말로 표현하면, '바로 이를



- 1933년 전북 정주 생
1938년 서울대 농대 졸
1963년 내소사에서 해안 스님을 은사로 득도
1973년 범어사에서 주석 계승
1974년 해인총림 선원장
1975년 조계종 총무원 교무국장, 중정 수석 사서
1976년 조계사 주지
1983~93년 내소사 주지
현재 내소사에 주석

수 있는 사람'인 것이지요. 더 자세히 말하자면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를 똑같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혹한 사람의 입장에서 답답한 것이, 선지식을 알아보는 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추천을 받는 것이지요. 일단, 세상에서 말하기를 누가 선지식이라더라 하는 공인된 선지식을 찾아 부딪쳐 보라는 얘깁니다. 어차피 모

는 사람이 판단은 더욱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그 아래서 공부를 하는 분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이 아니겠어요.

—출·재가를 막론하고, 선지식 만나기 힘들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젊은 학자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의지할 데가 갈수록 줄어들거든요. 물론 모든 수행자는 부처님 법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법은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책으로 공부하는 불교는 학문입니다. 학문으로 다가가면 경지도 경지는 경지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세계가 있기는 하지요. 불교를 단순히 교조와 교리만으로 충만한 종교로 본다면, 그렇게만 본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 불교의 궁극은 깨달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리 체계나 믿음의 방식 차원으로 해결될 일이 아닌 '깨달음'의 문제는 도그마와는 별개예요. '불교'라고 하면 종교의 형태를 갖춘 것을 말하지만, 부처님의 종지를 따라서 '깨달아야 한다'고 하면 형태로서의 종교를 훌쩍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식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으면 좋은 텐데, 저 또한 아직은 공부를 하는 단계여서...

—그렇다고 평생 스승에 의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혼자서 공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단계가 있지요.

흔히 '초견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단계는 아직 확실대로의 단계는 아닙니다. 이제 겨우 맛 본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의미는 대단합니다. 다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것이니까요. 마구니가 와서 꼬셔대도,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하는 확고부동한 자세를 갖춘 것이니까요. 그런 단계에서는 혼자 공부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토굴 공부라는 것도 그런 단계에서나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들 보면 너도나도 토굴 공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 토굴 공부한다는 사람을 만나면 물어 보지요. '왜 토굴 공부를 하십니까?' 하고요. 그러면 대부분은 대중 처소에서 시끄러워서 공부 안 된다고 그래요. 참으로 큰 착각이 아닐 수 없어요. 바탕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토굴 공부, 잠 맘대로 자고 망상 키우는 지름길이에요.

익기 전까지는 반드시 선지식이 있는 곳으로 가서 대중과 함께 공부해야 합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벌거벗은 주지스님』 그 차이는...

만물이 쉬어가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년이란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시절입니다. 나무하고 밭갈며 20여년 동안 포교활동을 해온 정호스님이 만난 세상사람들과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나 보십시오.

나무하고 밭갈며 20여년 포교활동을 해온 한 스님이 담아낸 아름다운 이야기



벌거벗은 주지스님

안면없는 얼굴을 피하기 위해 이른 새벽 몸을 담그려 하지만 윤이 없는 날은 영락없이 그곳에서 포교된 신도를 만나게 된다. 명색이 머리 깎은 출가승이 벌거벗은 상태에서 신도를 대하는 일은 식은 말 흐르는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제발 아는 척 하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최후엔 수증기속을 헤치고 가까이 다가와 얼굴을 확인하는 큰소리로 '주지스님' 하고 부르며 반가워 한다. 목욕탕 안에서 벌거벗은 주지와 신도가 서로 한창하며 인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목욕탕 안에 있던 많은 눈들이 일제히 한곳으로 집중된다.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리며 웃음이 절로 나온다. 드디어 어느날 그 상상보다 더 화끈거리는 시간이 벌어지고 말았다.

— 벌거벗은 주지스님 — 중에서

수행자의 근본은 중생을 제도하는 것입니다. 흥인 대각사에서 정진중인 정호스님은 세속의 많은 인연들과 함께 살며 그들의 아픔도 즐거움도 받아들여온 큰 강을 같은 포교활동을 해온 수행자입니다. 그런 스님이 살아가며 나뉘던 많은 이야기들을 이번엔 책으로 묶어 내놓았으니 무척이나 기쁜 일입니다. 가만히 책장을 한장 한장 넘겨보니 사랑할 호풍불아래 나직히 놓인 소중한 인연들의 이야기가 가득 들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벌거벗은 주지스님』은 하나를 나누며 키워온 한 수행자와 재가신도들의 참다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책과 인연공덕을 짓는 것도 마음의 큰 복권을 짓는 것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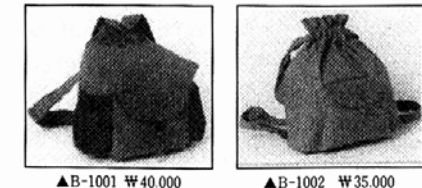
주요내용

- 1. 깨우침
밖 마실과 오명곡 / 훌륭한 보시 / 대나무 그림자 돌을 살고 있네 / 탁발 / 벌거벗은 주지스님
선방에서 군불 때는 소일 / 방편(方便)과 진리
2. 삶
채운사의 물소리 / 마음먹음과 형성함 / 열세구나 절세구나 / 낮도깨비 / 물고기와 바다
올해의 고추농사 / 마음을 비웠다든 거짓말 / 지옥에서 만난 사람 / 종교의 존재 이유는 최망이다
3. 죽음
죽은 자가 남기고 간 것 / 죽어서도 버리지 못하는 애착 / 우리의 장례문화 / 유서
무상의 극치, 화장(火葬) / 보이지 않는 세계
4. 수행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 욕망의 다이어트 / 절음 통한 건강법
휴가에 관한 몇가지 생각 / 아홉마와 보살 / 강을 건너야 할 아이들
5. 선지식
어느 부인의 편지 / 언뜻처럼 청정한 사람 / 해린 스님 / 큰 고향을 얻은 남자의 이야기
가난해지는 사람 / 아름다운 인연 / 열현의 깨달음

도서출판 土房
전화 722-4588 / FAX 722-4589

“스님” 이젠 바꾸세요 “불자님” 절에 갈때 “바람”을 메세요

■특허청 : 상표등록증 등록제 0472513호



▲B-1001 ₩40,000 ▲B-1002 ₩35,000



▲B-1003(대) ₩35,000 ▲B-1004(대) ₩33,000

※본 바람 및 빙거지는小白山 金剛寺 노스님 선방 건립을 후원합니다.

금강서 ☎(054)636-6546 / Fax: 632-6545

외환은행 : 223-22-03071-5

농협 : 061-17-001230

농협 : 013805-01-001737

국민 : 831-25-0022-019

예금주 : 주)천화 무역

제조·판매원 천화무역(주) TEL. 02)449-8844,449-9100

■취급점 모집점 (가까운 곳에서 구입하십시오)

Table listing various bran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Seoul, Busan, and Gyeonggi-do.